

흑룡강성 조선족 마을 이름의 래력

— 성내 62개 현 시에 분포된 499개 조선족 마을을 대상으로 풀이

흑룡강성민족사무원위원회는 198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흑룡강성내에는 조선족 마을이 499개인데 62개의 현, 시에 분포되어있다. 이 모든 조선족 마을은 조선의 이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흑룡강성내 여러 지역에 정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동북 3성에서의 조선인 이주는 흑룡강성이 제일 늦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0세기 초기부터 조선 이주민들은 묵단강시 산하의 녕안, 해립, 동녕, 묵릉, 립구, 밀산 등 현, 시에 많이 정착하였는데 이주민들은 주로 조선의 함경도 출신이었다. 그후로 조선의 이주민들이 흑룡강성의 서쪽과 북쪽으로 많이 진출하여 정착하였는데 이주민들은 주로 조선의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오두막을 짓고 숲이 우거진 황무지를 개간하고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며 논을 일구고 부락을 세우고 학교를 꾸렸다. 당시 민간에서 다른 민족들은 조선족이 모여사는 동네를 ‘꼬리툰(高麗屯)’, 또는 ‘꼬리잉즈(高麗營子)’라고 불렀는데 조선족 마을 이름이 명명되면서부터 ‘꼬리툰’ 소리가 점차 민간에서 사라졌다.

●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들

499개의 조선족 마을 이름 가운데서 같은 이름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수적으로 많은 촌 이름을 보면 동광촌(东光村)이 10개, 신흥촌(新兴村)이 8개, 동명촌(东明村)이 7개, 광명촌(光明村)이 6개이다. 그리고 ‘신(新)’자가 붙은 촌 이름이 73개, ‘광(光)’자가 붙은 촌 이름이 62개, ‘동(东)’자가 붙은 촌 이름이 53개, ‘흥(興)’자가 붙은 촌 이름이 52개, ‘성(星)’자가 붙은 촌 이름이 41개, ‘선(鮮)’자가 붙은 촌 이름이 34개, ‘명(明)’자가 붙은 촌 이름이 26개이다.

조선족들이 선호했던 이런 글자를 붙여 지은 마을 이름들을 보면 실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흐른다.

특히 몇몇 조선족향 산하의 조선족 촌 이름을 보면 마치도 어느 가문의 이름자 돌림 같다. 북한시 주성조선족향 산하의 조선족 촌들은 위성촌, 주성촌, 금성촌, 흥성촌, 명성촌 등 ‘성(星)’자 돌림이고 밀산시 화평조선족향은 동승촌, 동흥촌, 동명촌, 동선촌 등 ‘동(东)’자 돌림이며 해림시 신흥향의 조선족 마을 이름들은 신흥촌, 신승촌, 신흥촌, 신중촌, 신흥촌 등 ‘신(新)’자 돌림이다.

● 협동협력해 잘살아보려는 욕망을 담아

립구현 룡조진 일심촌(一心村)은

1943년에 정착한 개척민들이 떨어져서 마을길을 곧게 뻗고 초가집을 나란히 지어 38세대가 새집들이를 했는데 이렇게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잘살아보려는 욕망으로 마을 이름을 ‘일심촌’이라고 지었다.

연수현 가신진 유민촌은 넉넉할 ‘유(裕)’자에 백성 ‘민(民)’자를 붙여 촌 이름을 ‘유민촌’이라 지어 잘살아보려는 마을사람들의 념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별리현 길흥향 부흥촌(富兴村), 방정현 보흥향 부민촌(富民村), 연수현 가신진 부유촌(富裕村) 등이 있으며 가목사시 교외의 항심촌(恒心村), 아성시 사리향과 녕안시 화룡향 그리고 수화시 흥화향의 근로촌(勤劳村)들도 있다. 해마다 풍년을 기약하고 좀더 나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풍(丰)’자를 붙여 지은 마을 이름은 25개나 된다.



● 마을 이름을 개명한 사례 특별히 많아

훌륭한 이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이 틀림없다. 살다 보면 예전에 지은 이름이나 또는 원주민들이 부르던 마을 이름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념원을 담은 마을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촌명을 개명한 사례가 많다.

탕원현 탕왕조선족향에서는 인민공사 시기에 예전에 부르던 마을 이름들을 개명하였다. 중심촌(中心村)을 금성촌(金星村)으로, 부귀촌(富贵村)을 태양촌(太阳村)으로, 광성촌(光星村)을 홍광촌(红光村)으로, 영원촌(永远村)을 성광촌(星光村)으로, 승리촌(胜利村)을 홍기촌(红旗村)으로, 안민촌(安民村)을 동광촌(东光村)으로, 영전촌(永全村)을 오성촌(五星村)으로 개명했다.

동녕현 삼자구진 대우사구(大鸟蛇沟) 조선족 마을들은 1대, 2대, 3대로 부르다가 상툰, 중툰, 하툰으로 개명했고 다시 ‘동방흥촌’, ‘오성촌’, ‘광성촌’으로 고쳤다.

● 정착한 지역의 산하에 의해 마을 이름을 짓다

흑룡강성내의 조선족들은 묵단강,

송화강, 묵릉하, 해랑하, 왜궁하, 라림하, 탕원하 등 60여갈래의 크고 작은 강하(江河) 류역에 삶의 터전을 닦았다. 마을이 앉은 위치에 따라 강남촌, 강북촌, 강서촌, 강동촌, 하남촌, 하북촌, 물남촌, 수남촌 등으로 이름지어진 촌이 12개나 되었고 ‘마련하’, ‘밀강’과 같이 하천의 이름으로 명명된 마을도 있다.

산을 등지고 앉은 마을들을 보면 오히려의 령남촌, 요하현의 쌍희령촌, 상지시의 호산촌 등이다. 마을 뒤산에 다섯개의 오각별 모양의 산 골짜기가 모여있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해림시 ‘오성촌(五星村)’, 마을 뒤산에 홍암으로 된 절벽이 있어 지어진 녕안시의 홍암(红岩)촌 등이 다.

● 형제민족과의 화합의 뜻을 담아



한족들이 집거하여 사는 향진에 하나뿐인 조선족 마을들에서는 형제민족들과 공동히 분투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터전을 가꾸기 위하여 마을 이름을 ‘우의촌’, ‘우호촌’ 등으로 지었는데 그들은 활빈시 군력향 우의촌과 민주향의 우의촌, 그리고 녕안시 평안향의 우의촌과 범가향의 우호촌 등이다. 수십년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평등, 단결, 호조하는 관계를 수립하고 번영과 부유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며 모두들 호형호제하면서 지낸다.

성내의 모든 조선족 마을들은 여러 민족들과 서로 도우며 민족단결의 꽃을 피워가고 있다. 외란현 영란향의 조선족 마을인 복신촌에서는 1952년 7월에 한족 마을인 육림촌이 큰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자 큰물에 집이 허물어진 육림촌의 30여호 농가의 살림집을 지어주었고 300여부의 비옥한 토지를 육림촌에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지금도 두 마을은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민족단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고도 많다.

● 역사유적지나 항일투사의 이름으로 명명

녕안시 발해진 상경촌(上京村),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古城村), 철령현 년풍조선족향의 운산촌(云山村) 등은 역사유적지에 근거해 지어진 이름

이고 녕안시 와룡향 영산촌(英山村)은 항일투사 박영산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 원 마을 이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어

적지 않은 조선인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한족 마을에 정착하여 그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닦아오면서 부지런히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을 일구었다. 수전 면적을 많이 늘이다 보니 벼농사를 지으려는 조선족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주하여 오게 되었다. 나중에 조선족 주거민이 많아지면서 조선족 마을로 된 사례가 적지 않다. 녕안시 발해진 향수촌(响水村)이 그 예다.

묵단강 상류에 자리잡은 향수촌은 300여년의 역사를 품은 마을로서 마을 이름도 ‘상수(想水)’에서 ‘향수(响水)’로 바뀌었다. ‘향수임쌀’은 흑룡강성의 명브랜드이며 향수촌은 묵단강시에서 유일한 ‘벼일품촌(水稻一品村)’이다.

해림시 신탄조선족진의 삼가자촌(三家子村)은 처음 이곳에서 마(马), 관(关), 복(卜)씨 성을 가진 한족 3세대가 살았다고 하여 삼가자라고 불리웠다. 후에 수전농사를 하려고 많은 조선족들이 이주하여 와서 나중에 조선족 마을로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하여 삼가자촌이라고 부른다.

외란현 영란조선족향의 오가촌(吴家村)은 한족 오씨네가 모여 살던 마을이었었는데 벼농사를 지으려고 이주하여온 조선족이 많아지면서 조선족 마을로 되었다. 지금도 이 마을의 조서족, 한족들은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 조선족 마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鲜)’자를 붙인다

“《연수현 조선족 백년사》에 연평향 평선촌은 연평향이란 ‘평(平)’자에 조선족 마을이란 ‘선(鲜)’자를 붙여 지은 이름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외에도 다른 소수민족 마을이 없는 현, 시에서 ‘민족촌’이라고 지은 마을은 조선족 마을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안현과 수중현의 ‘민족촌’의 경우다. 그리고 손극현에서는 전 현에 하나 밖에 없는 조선족 마을 이름을 ‘조선족촌’이라고 명명하였다.

● 옛 고향의 지명을 그대로 차용한 사례도

상지시 어지향 초산촌에 처음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조선의 초산군에서 이주하여온 사람들로서 고향을 못 잊어 촌의 이름을 초산촌(楚山村)이라고 명명하였다. 어지향의 창평촌도 원 조선의 고향 지명 창평(昌平)으로 지은 이름이다. /흑룡강신문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동지는 중국 전통의 중요한 절기의 하나이며 동지에 중요한 전통 명절의 하나이다. 청명과 동지는 절기이면서 또한 명절이기도 하다. 동지는 태양이 남회귀선을 직사하는 날로서 우리 북반구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지는 대설과 소한 사이에 오는 절기이다.

동지는 대략 12월 21일이나 22일에 드는데 그 이튿날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동지는 보통 음력으로 동지달에 드는데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 하며 하순에 들면 로동지라 한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아세(岁) 또는 ‘작은설(小年)’이라고도 하였다.

동지는 고대 문헌에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와 관련된 상서로운 날로 묘사되었다. 한나라 때부터 동지는 ‘동절(冬节)’로 지정되었으며 공휴일이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경축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달력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였으며 가족끼리 모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동지날에 달력을 주고받는 것은 동지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풍속이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 동지는 천황 제사와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로 되었고 황제는 교외에서 천황제를 지내고 일반 백성들도 이날에 부모에게 제사를 지냈다. 동지날의 기념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풍습에는 북쪽에서는 혼돈을 먹고 중원에서는 만두를 먹었

다고 한다.

동지절은 한나라 때에 시작되어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 더욱 발전하여 중요한 큰 명절로 되었다. 하여 이날에 정부에서는 휴식하고 군대는 대기하고 상업 활동은 잠시 중단하였다. 사람들은 가족 상봉을 기원하고 가족 모임을 즐겼다. 우리 나라 남부 지방에서 동지는 조상 제사의 중요한 날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혼돈이나 만두를 먹는 데 비해 우리 조선민족은 동지에 동지팔죽을 즐겨 먹었다. 동지날을 사람들은 아세라 하고 민간에서는 작은설이라 하여 옛날부터 이날 팔죽을 주어 조상께 제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의 무사안녕을 빌었다. 동지날에는 새알심을 넣어 끓이는데 가족의 나이 수대로 넣어 팔죽을 끓이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팔죽을 먹어야 한살 더 먹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동지 음식에는 또 나름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애동지에는 팔시루떡을 해먹고 중동지에는 팔죽이나 팔시루떡을 해먹으며 로동지에는 팔죽을 만들어 먹었다. 팔떡은 애기들의 돌잔치에 많이 하는데 애기에게 잡귀의 범접을 막는 벽사의 뜻으로 애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백설기는 총명, 경리하고 결백하여 출세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였다.

동지의 대표적인 속담들로는 “동지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 만큼씩 길어진다”,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등이 있다.



서장 아리지역 민간 전통 무용〈선무〉

서장자치구 아리지역 짜다현에서 기원한 〈선무(宣舞)〉는 서장 아리지역의 민간 전통 무용으로서 형식은 서장극, 무용, 설창 등 장극 주요 민간 예술이 결합되어있으며 내용은 종교, 의식, 풍습, 축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지난 2008년, 〈선무〉는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진은 짜다현 구거(古格) 왕국 유적지에서 〈선무〉를 추고 있는 현지 주민들. /중국넷



녕하 공연예술타운에서 선보이는 불쇼

녕화회족자치구 은천시 서하구에 위치한 ‘만포(漫葡)·허란(贺兰)을 보다’ 물임식 공연예술타운은 독특하고 다양한 허란산 문화로 중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불쇼를 선보이고 있는 예술가. /신화넷



민족 특색 다분한 운남 시쌍반나 성광 야시장

운남성 시쌍반나 타이족자치주 경홍시에 위치한 고장시쌍경 성광 야시장은 밤이면 환한 불빛 아래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제1차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밀집구역의 하나인 성광 야시장은 독특한 민족 특색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광업 트렌드를 도입했다. 이들은 야간 상업상품을 비롯한 특색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시쌍반나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민넷